

SNS로 채용정보 올리고 온라인 100% 전형도

# 삼성·LG 등 '언택트 채용' 바람

기업 70% "언택트 채용도입 찬성" 삼성·SK, 온라인 채용설명회 진행 LG·CJ·카카오, 직군별 화상 면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이 늦어진 기업들이 '언택트 채용'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삼성과 SK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LG·CJ·카카오는 직군별 화상 면접을 도입한다.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상반기 공채를 진행 중인 롯데와 포스코는 기업 SNS채널을 활용해 채용 정보를 전달한다. 라인플러스와 이스트소프트는 전체 전형에 100% 온라인 채용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언택트 채용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기업 인사담당자 331명을 대상으로 '언택트 채용'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9.2%,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30.8%로 언택트 채용 도입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언택트 채용 도입 찬성 이유로는 '현 상황에 맞춰 감염우려를 낮출 수 있기 때문'(31.9%), '채용절차에 필요한 시

기업명	언택트 채용 대응
삼성 SK	온라인 채용 설명회
LG CJ 카카오	화상면접 도입 (직군별 상이)
롯데 포스코	기업 SNS채널 통해 채용정보 전달
LINE 이스트소프트	전 전형 100% 언택트 선발
호반건설	AI 역량 검사(5월 공채)

/자료=인크루트 알바콜

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27.5%), '새로운 채용방식 도입의 전환점이 될 것'(23.1%), '기존 채용과정 중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절차들이 있음'(17.1%) 등의 순이었다. 종합해보면 채용 소요 시간과 비용 절감과 새로운 채용방식에 대한 기업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추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언택트 채용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도입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고 보는 전형으로는 '인성 검사'(25.6%), '임원 면접

'(23.8%), '필기전형'(실무자면접'(각 18.1%), '직무테스트'(13.9%) 순이었다.

반대로 언택트 채용 도입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얼굴을 안 보고 직원을 선발하는 점에 대한 위험성'(46.9%)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등장했지만 이후 일시적인 채용방식에 그칠 것'(15.0%), '통신 장애 등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10.6%), '언택트 채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비용, 인력 투입이 예상되어'(8.4%), '기존 취업방식과 비교해 혼란이 예상되어'(8.0%) 등이 있었다.

언택트 채용이 코로나19 이후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지 묻은 결과 '그렇다'(77.9%), '그렇지 않다'(22.1%)로 집계돼, 향후 언택트 채용 확산에 대한 전망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언택트 채용 도입이 늘어난다는 점은 곧 코로나라는 악재를 맞은 기업들이 이를 묘수로 인재 찾기에 나서려는 움직임일 것"이라며 "비록 상반기 공채점수는 한 달 이상 늦춰질 전망이지만 언택트 채용을 최대한 활용해 전형별 소요시간을 줄인다면 합격자 발표는 예년과 같은 6월경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학교급식, 개학하면 짝꿍없이 밥 먹는다

서울시교육청 교실배식시간편식 식당배식편 가림판, 좌석조정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개학이 이뤄지면 학교 급식 운영도 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이후 교육과정 운영시 학생과 교직원 동시 시간 동일 공간에 모여 식사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접촉(비말, 신체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급식 제공 방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각급학교에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개학 전에는 방학 기간 중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과 기구에 대한 대청소와 안전점검, 전체 특별소독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실시된다. 교실배식 전환 시 조리방법과 배식이 용이하도록 식단을 구성하되, 필요시 간편식을 제공하고 면역력을 높이

는 식단 구성이 되도록 하고, 추후 간편식 메뉴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식당배식을 유지할 경우 좌석배치 조정을 통해 학생간 거리 두기, 식탁에 임시 가림판 설치, 학년별·반별 시차를 뒤 배식 시간을 최대한 분산, 식당 외 배식 가능 공간을 확보해 임시 식당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석식은 잠정 중단토록 권고하되 학교 급식의 조·중·석식은 유지하도록 했다.

배식시간 분산에 따른 급식종사자의 시간외수당 1일 2시간 이내를 인정하고 관련 인건비는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

## 호남대 코로나19 심리상담 '호남마음콜' 운영

호남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신입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호남마음콜'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강연기와 온라인 학습 등으로 재택 온라인수업을 받고 있는 신입생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호남마음콜'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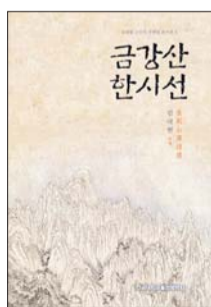
호남대 학생상담센터가 개발한 위기상담 프로그램 '호남마음콜'은 1차 1대

1 전화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상담에서 우울 및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과는 2차 화상 상담이 이어진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호남대 학생상담센터는 이번 위기상담을 위해 전문상담사 10명을 배치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상담에서는 8단계의 상담 매뉴얼에 따라 신입생들의 심리상태를 체크한다. /이현진 기자

## 김대현 전남대 교수 '금강산 한시선' 출간

민족의 성산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문학의 창작 공간이었던 금강산을 주제로 한 '금강산 한시선(사 진)'이 발간됐다.



전남대는 우리나라 한시를 주제별로 모아 번역해 온 김대현 국문학과 교수가 '무등산 한시선'과 '사군자 한시선'에 이어 편역서 '금강산 한시선'을 세 번째로 출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전염병, 생물무기에 준하는 위험



문영철

국방기자 칼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물무기처럼 세계 각국의 산업과 의료 치안 등 정상적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중국 우한발 전염병이 의도치 않게 세계적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 위기가 보건으로 물자와 식량 등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물자 쟁탈전으로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세계가 전염병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마치 1차 세계 대전 말기부터 종전후까지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처럼 말이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무렵이던 1918년~1919년 일명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던 H1N1 바이러스는 전 세계 약 500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발원지는 미국이었지만, 당시 중립국으로 전시 보도통제가 없던 스페인 언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다.

이 전염병은 한반도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1918년 조선 총독부 집계 따르면 조선 총인구 1670만명 중 44%인 742만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 14만명이 죽었다. 일본인 역시 15만 9916명의 환자가 발생해 1297명이 사망했다.

페스트가 창궐했던 중세와 달리 정보와 통신, 교통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와 피해도 빠르고 크게 확산될 수 있다. 전염병은 생물무기에 준하는 위협이란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captainm

대한민국에서 흔하던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없어서 못구하는 귀한 물건이 된지 오래다. 코로나 19 발병초기 중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마스크를 사들였고, 마스크필터 원자재의 수출을 막았다. 공적마스크를 사기 위해 늘어난 행렬은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난 19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4개 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탄약업체 암모(Ammo)의 지난 3주 동안 매출은 전례 없이 늘었다.

미국에 있는 지인들은 탄약 뿐만 아니라 총, 방탄복용 방탄플레이트까지 동이났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 한 미국 지인은 "지금은 마스크와 식량을 놓고 줄을 서겠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약탈을 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포도검 심지어 장난감 총마저 모의총포로 칼같이 통제하는 대한민국의 일어난다. 힘들이지만, 국가 대 국가라면 무장집단인 군대가 있으니 우발적 상황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다.

군대가 있어도 운용을 해야 할 터인데, 야외훈련과 병력이동도 통제된 상황이다. 국가위기 시 동원될 예비군의 훈련도 또 다시 6월 이후로 연기됐다. 군이 민을 위해 엄청난 봉사를 펼치고 있는 것도 군의 임무이지만, 군 본연의 국가방호라는 차원에서 조금은 불안함도 있다.

보건용마스크 보급을 줄일 정도라면, 즉각적인 임무는 고사하고 경제근무자의 정상적 근무를 위한 전투근무지원도 문제란 생각이 든다. 불안감을 조장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염병을 생물학 보호전쟁으로 인식하고 국가존립을 위한 전략물자들의 비축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captainm

## 배재대 신입생 2200명에 '깜짝 선물'

배재대가 2020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증서·기념품 등 '깜짝 선물'을 보냈다.

배재대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입학식을 개최한 데 이어 입학 증서와 총장 환영사,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인 '도전학기제'를 알리는 학사력 캘린더, 기념품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했다. 총발송인원은 2020학년도 신·편입생 2200여명이다. 신입생들 받은 캘린더에는 대학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학사일정과 인재상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돼 있다. 2주 연기된 중간·



김선재 배재대 총장(오른쪽)이 신입생에게 전달될 선물 포장을 하고 있다. /배재대

기말고사 일정 등 학사일정 전반이 들어 있었다. /이현진 기자 ihj@

## 금오공대 학생·학부모 위한 '금오콜센터' 운영

금오공대가 23일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금오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오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대학 학사일정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에 적극 대응하고 문의사항을 즉각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콜센터에서는 ▲학사 및 등교 일정 ▲수강방법 ▲생활관 입소 ▲휴·복학 처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의사항을 안내한다. 운영기간은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간이다. 비대면 수업 일정 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현진 기자